

# 정부, 지난해 R&D 18.9조원 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결과 전년 대비 7.0% 증가... 기계·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 집중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에 사용한 예산이 18조5874억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계와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에 투자예산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정부연구개발예산 18조5874억7천원, 639개 사업, 5만4433개 과제에 대한 투자부문의 조사·분석 결과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우선 2015년도 총 투자액은 18조874억7천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정부연구개발연구예산은 18조5890억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미집행액(미배정, 불용 등) 153억원을 제외한 99%가 집행됐다.

미래부(6조50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3조4000억원), 방위사업청(2조5000억원), 교육부(1조8000억원), 중소기업청(1조원) 등 연구개발(R&D) 추진 주요 5개 부처가 전체 79.4%인 15조원을 지원했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2000만원) 증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지원규모는 출연연(7조5800억원·41.4%), 대학(4조3000억원·22.6%), 중소기업(2조8000억원·14.8%), 국공립연(1조원, 5.1%), 대기업(6000억원·3.3%), 중견기업(6000억원·3.2%) 순이다.

연구단계별로는 개발연구(5조8000억



**악재 겹친 대우조선해양**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경영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편 노조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직원들이 선박 모형 앞을 지나고 있다.

원·43.7%), 기초연구(4조9000억원·36.6%) 등 순이다. 기초연구 비중은 지난 2011년 30.7%에서 지난해 36.6%로 매년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대전(5조5000억원), 서울(3조8000억원), 경기(2조6000억원), 경남(9000억원) 등 순이다. 지방(수도권, 대전 제외) 비중은 2011년 27.9%에서 지난해 33.3%로 높아졌다.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조9000억원·16.3%), 정보통신(1조8000억원·10.3%), 전기·전자(1조7000억원·9.7%), 보건의료(1조5000억원·8.7%) 순이다. 융복합기술 분야는 2조3000억원으로 2.5% 증가했다.

연구책임자는 38만1264명 증가한 3만4145명으로 남성(2만9309명·85.8%)이 여성(4836명·14.2%)보다 6.1배 많았다. 성비 격차는 전년 6.6배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3.4%(1400만원) 증가한 4억4000만원이다. 신진연구자(만40세이하) 1인당 연구비는 1300만원 늘어난 1억6100만원으로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4억4000만원)의 36.5% 수준이다.

박필환 미래부 성과평가혁신관은 "지난해 연구개발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 5.7%보다 높은 7.0%가 증가했다"며 "R&D 투자확대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한 단계 도약하고 자 하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고 했다.

이어 "특히 지방·여성·신진연구자·중소기업·기초연구 분야 연구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생태계를 구성하는 연구 분야 및 연구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및 차세대 먹거리 발굴할 수 있는 씨앗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과심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상세 통계집을 포함해 보고하기로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is.go.kr>)나 국가 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인진수 기자

## 외화예금 5월 역대 최대 감소폭

### 568억5000만 달러로 전달 대비 8.36% 줄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던 외화예금이 5월 들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등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뜻한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5월말 거주외화예금 현황'에 따르면 외화예금 잔액은 568억5000만 달러로 전달 대비 51억9000만 달러(8.36%) 줄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9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는 달러화 예금이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채권 발행자금과 대기업의 수출대금 예치로 사상 최대치(516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달러화 예금은 5월 47억8000만 달러 감소한 469억 달러로 집계됐다.

달러화 예금도 지난 2014년 9월 이후 최대폭(9.25%)으로 줄었다.

달러화 예금은 공기업 등이 해외

채권 만기상환을 앞두고 예금을 인출한 탓에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4월 198억2000만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온 위안화 예금 역시 8억5000만 달러 줄어든 16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은은 "증권사의 만기도래 정기예금 인출 등으로 위안화 예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로화 예금은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의 인수자금을 예치한 영향으로 5억4000만 달러 증가, 36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밖에 엔화 예금(34억 달러)은 전달 대비 1억9000만 달러 줄었다.

영국 파운드 및 호주달러 등 기타 통화 예금(13억1000만 달러)은 9000만 달러 늘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은 48억2000만 달러 감소한 490억9000만 달러, 개인예금은 39억7000만 달러 줄어든 77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인진수 기자

## 삼성·LG, 스마트폰 "교체 주기 줄이자"

### 1년 내외로 단축·충성도 높이는 전략 구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판매량 성장세 둔화에 적극 대응,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객들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1년 내외로 단축하며 동시에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에 힘쓰는 모양새다.

IT 자문기관 가트너의 2016년 스마트폰 판매량은 총 15억대로 성장률이 7%로, 2020년 19억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따른 것이다.

시작은 올해 갤럭시S7을 국내 출시하며 '갤럭시 클럽' 운영을 발표한 삼성전자다. 갤럭시 클럽에 가입하면

'갤럭시S7'을 2개월 할부로 사고 1년 이후 제품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 부담 없이 최신 갤럭시S7 또는 노트 시리즈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LG 역시 LG유플러스를 통해 'H클럽'을 선보였다. 이는 할부원금의 50%를 18개월 동안 납부(30개월 할부 기준)하면 남은 할부원금 50%와 중고 폰 시세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단말기 교체 프로그램이다.

고객들의 새 제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입 대상도 다양한 모델로 가능하게 해 스마트폰 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키웠다.

/인진수 기자

## 초저금리에 뭉치던 상가·오피스텔로

### 금융권 1분기 부동산·임대업 대출 잔액 158조3320억원 사상 최대치 경신

금융권의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잔액이 160조에 육박했다.

저금리 기조에 임대업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과 상가를 사들여 임대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사업이 활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8조332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3개월 전보다 4조5000억원(2.9%) 증가한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3조970억원(17.1%) 불었다. 최근 1년간

분기별 증가율은 4.8%, 4.7%, 3.6%, 2.9%로 증가폭은 좁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산업권을 압도했다.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가계가 아닌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빌려준 자금이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이 138조3190억원으로 87% 이상을 차지했고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빌린 돈은 20조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대출금이 많았다. 지난 1분기 우리

은행의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잔액은 23조1960억원으로 1년 새 2조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이 크게 불어난 것은 금리가 낮고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료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은행도 눈에 보이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어 꺼릴게 없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내림에 따라 이러한 기류

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분양권 시장과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시중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익형 부동산은 보통 월세로 거래되며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심교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 시대에는 재건축 아파트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이번 금리 인하로 이런 시장 상황이 다소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하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78.7%에 달한다.

서울은 70.8%, 경기도는 77.4%이며 광주·경주 78.1%다. /인진수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사업과  
 063-430-2951